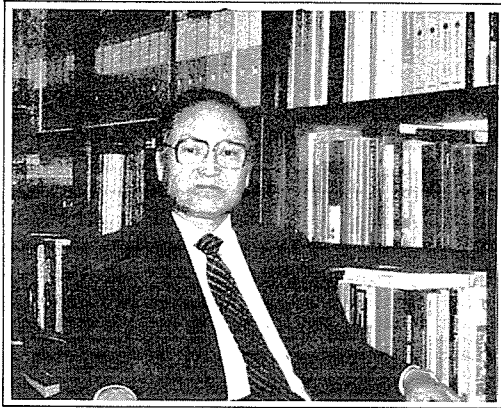


“韓國測地網정비에 지혜모아,,

원격탐사등 첨단기술 정착에도 주력



安哲浩 회장

○ 최근 국토개발이용의 고도화에 따라 測
○ 地 및 地圖제작분야에 있어서도 그 기술의
○ 질적향상 및 발전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
○ 다.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測地學이 독립된 학
○ 문으로서 정립되지 못하고 土木工學의 한 분
○ 과로서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 의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도제작, 인공위성
○ 에 의한 원격탐사, 그리고 레이저光을 사용
○ 한 측량등의 눈부신 발달을보더라도 國土開
○ 發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기
○ 술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축적
○ 이 시급한 실정이다.
○ 지난81년 測地學, 사진측량학 및 지도학
○ 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의 보급을 활성
○ 화하기 위해 설립된 韓國測地學會 安哲浩
○ 회장(서울대공대 도시공학과교수)을 만나
○ 우리나라 測地분야의 현재와 함께 우리의
○ 당면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地球科學의 일부야인 測地學, 사진측량학 및 지도학은 새로운 기술적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공위성측지법, R-remote Sensing(원격탐사) 기술등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 활용하려면 새로운 정보의 수집, 축적에 힘써야합니다. 또 국제적인 기술교류와 독자적인 조사연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함은 말할나위가 없습니다』

安哲浩회장은 최근 국토개발이용의 고도화에 따라 측지기술분야의 질적향상 및 발전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축적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電磁波거리측정기, NNSS, VLBI등의 측지이용, Landsat에 의하여 새로운 세대를 맞이한 R-remote Sensing기술의 이용, 국토정보의 數值化를 위한 기술개발의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측지학의 특징은 정지된 지구를 측정하는 과학에서 움직이며 변화하고있는 지구를 측정하는 과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이나 超長基線干涉測定(VL-BI: Very Long Base Line Interferometry)이라는 획기적인 새기술에 의한 計測(測定)의 발전은 측지학의 실태와 교육면에 있어서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安회장은 인공위성(LANDSAT)에 의한 지구의 자원탐사 및 환경조사는 우리나라 國土開發에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며

또 VLBI의 발전은 대륙붕개발에 따라 예견되는 国境線분쟁(특히 海上)시의 국경선 확정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내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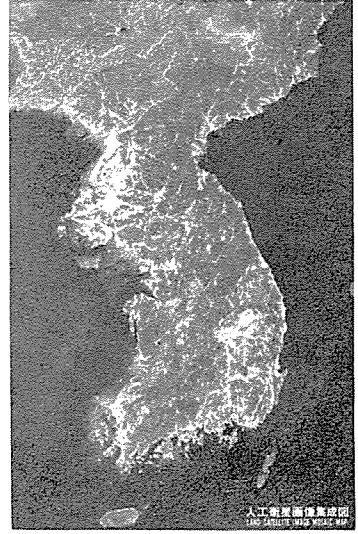
이밖에도 최첨단기술인 Remote Sensing 기술로 도시 수목의 총본수를 뽑아냄으로써 도시환경정비는 물론 鑛物資源탐사, 문화재 복원등에도 활용 되는등 人間生活을 보다 안락하게 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도 크게 이용되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을 수신하는 시설이 없기때문에 수신소설치와 함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는 Data Bank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추어져야 겠습니다』 安회장은 우리나라 測地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그 학문적인 전통과 연구기반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연구활동 또한 매우 미미하고 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에 測地學科가 설치된 곳이없어 토목학과나 지리학과, 항공우주학과같은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다.

『이웃 日本이나 美国에는 물론 大學에 測地學科가 설치돼 있고 구라파에는 測量大學까지 있어 이분야의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교육제도가 개선되어 측지학과 개설은 물론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확충과 아울러 연구비지원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겠습니다』 金회장은 이에따라 測地學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회가 求心點이 되어 측지기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토착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大韓測地學會는 측지학, 사진측량학(Remote Sensing포함)및 지도학에 관한 연구와 측지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측지기술자의 지위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81년 창립된 이후 학회지 발간,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학술조사연구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측지분야 첨단기술의 도

입·활용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學會歷史가 짧아 아직 짜임새 있는 사업들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는 安회장은 우선은 일반 대중의 측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힘



쓰고 학회 기반구축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安회장은 앞으로 학회지발간등의 기본적인 학술조사연구 및 진흥활동을 보다 알차게 전개하는 한편 2천년대를 지향한 ▲ Remote Sensing 기술의 개발정착 ▲ 조사연구활동의 기반조성 ▲ 측지기술의 선진화 및 국제화 ▲ 기술혁신을 위한 官·産·學협조체제의 확립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국에 분포돼 있는 韓國測地網을 국제추세에 맞춰 정비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Remote Sensing에 의한 첨단기술 정착에도 힘쓰며 회원확보에도 주력, 5백명선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安회장은 측지 및 지도제작사업의 당면과제인 精密測地網의 조기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원의 국립지리원 야산에 설치된 경위도선(우리나라 토지위치의 원점)과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높이 수준원점을 기준으로한 전국에 분포돼 있는 각 평면삼각망과 높이 수준망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루빨리 완성시키는 것이 숙원사업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최첨단기술인 Remote Sensing기술을 개발, 정착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權光仁記)